

## No. 12.

# 생 유리 피부편을 이용한 종부 및 족저부 연부조직 결손의 재건

## Soft-tissue Reconstruction of Heel and Sole with Various Free Flaps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이광석 · 강기훈 · 권규호 · 임당재

**서론 :** 종부 및 족저부는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하고 하중을 많이 받는 부위이므로 정맥혈액의 복귀도 잘 안되며 말초신경의 지배를 받으므로 외상이나 욕창 및 당뇨병 궤양 등에 의한 연부조직의 결손시 타 부위보다 상처 치유가 잘 안 되어 지금까지도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여러 번의 수술로 치료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연부조직 재건술의 목적은 감염을 조절하면서 상처를 치유시키고 또한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미세혈관이 부착된 생 유리 피부편을 이용하여 연부 조직을 재건할 경우 피부와 피하층을 이식함으로써 한번의 수술로 피부결손 부위를 피복할 수 있고, 입원 기간이 짧으며, 유리 피부편 자체가 영구적인 혈액공급과 피부의 감각회복이 가능하고 유연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이에 저자들은 종부 및 족저부의 광범위한 연부조직 결손에 대하여 다양한 생 유리 피부편을 이용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 1980년 5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종부 및 족저부 연부조직의 결손을 보였던 33례의 환자에 대하여 미세 수술을 이용한 다양한 생 유리 피부편 이식술을 시행하고 술후 감염의 유무, 공여부의 이병율, 감각의 회복 정도 및 미용적인 결과를 평가하여 각각의 생 유리 피부편을 비교하였으며 평균 추시기간은 8년 4개월이었다.

**결과 :** 결손 부위는 총 33례중 종부가 22례, 족저부가 7례, 종부 및 족저부가 4례였다. 또한 생 유리 피부편은 대퇴근막 장근 피부편이 4례, 족배부 피부편이 10례, 전완부 피부편이 9례, 광배근 피부편이 10례였다.

최종 추시결과 광배근 피부편 이식술시 비만한 환자에서는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 지방 제거술이 필요했던 경우가 4례였으며, 전완부 피부편 이식술시에는 공여부의 상흔 및 요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이상감각을 보인 경우가 3례였고, 족배부 피부편 이식술시에는 공여부의 감각저하가 3례에서 보였다. 이에 비하여 대퇴근막 장근 피부편 이식술시에는 적절한 두께의 피부와 피하조직에 의한 피복으로 4례 모두에서 우수한 미용적 결과를 보였으며 이식된 피부편의 넓이 중 약 70% 이상에서 감각의 회복을 보여 50% 이하의 감각 회복을 보인 타 피부편 이식술보다 감각의 회복이 우수했으며 이중 식별 검사에서도 평균 4cm의 결과를 보여 8cm 이상을 보인 타 피부편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감염의 증거는 총 33례중 어느 경우에서도 보이지 않았으나 단지 장액성 삼출을 보였던 경우가 3례에서 있었으며 이중 1례는 환자가 당뇨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로 술후 6주경 삼출이 멈추고 완전한 상처 회복을 이루었고 나머지 2례는 환자의 직업상 관리가 힘들었던 경우로 각각 술후 8주와 10주에 상처 회복이 이루어졌다.

**결론 :** 저자들은 33례의 종부 및 족저부 연부조직의 결손에 대하여 다양한 생 유리 피부편을 이용하여 전례에서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결론적으로 생 유리 피부편 이식술은 고식적인 방법에 비해 감염 조절 및 기능적, 미용적 결과가 뛰어나며, 또한 생 유리 피부편 이식술 중에서 대퇴근막 장근 피부편 이식은 종부 및 족저부 연부조직 결손에 대한 치료로써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생각된다.